

아동센터광주지원단, 생물자원·환경교육 확대 협약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단장 최강남)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10일 아동·청소년 대상 생물자원 및 환경교육 확대와 지역사회 ESG 실행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광주지역 아동·청소년들이 생물자원 교육과 체험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생태 감수성과 환경보전 의식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보훈청, 예비전력 업무담당자 과정 개강식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센터장 김미숙)는 지난 10일 장성 상무학원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전문위탁교육 '예비전력업무담당자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사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예비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에 비군 지휘관을 말한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의해 응시 가능 병과와 계급이 제시되어 있으며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만이 응시 가능하다. 이번 과정은 2025년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오는 9월 25일까지 예비군법, 병역법, 예비군 훈령, 통합방위법 등의 강의와 모의고사로 진행된다. /서민경 기자 minky@

'보따리 작가' 김수자

佛 문화예술 공로 훈장 수훈



'보따리 작가'로 불리는 김수자(68·사진)가 지난 9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 공로훈장 오피시에(Officier)를 받았다. 2017년 슈발리에(Chevalier)에 이어 두 번째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수훈이다.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코망뉘르(Commandeur)와 두 번째 등급 오피시에, 세 번째 등급 슈발리에로 나뉜다.

서울과 프랑스 파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수자는 회화, 바느질, 설치, 퍼포먼스, 영상, 빛과 소리,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계를 초월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가다. 가구와 헌 옷 등을 전통 보자기로 감싸는 설치 미술 '보따리 연작' 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보따리 작가'로 불린다. /연합뉴스

시민정책패널·일광기념관, '쉬엄쉬엄 걷기' 개최



시민정책패널과 일광기념관, 100만 독립군 등이 공동주관한 '쉬엄쉬엄 걷기' 특별프로그램이 지난 12일 광주 북구 문화동 일대에서 열렸다. <사진> '쉬엄쉬엄 걷기'는 고창군 출신으로 호남 의병 가운데 최초 순국한 일광 정시해 의사를 기리는 일광기념관(관장 정만기)이 2000년부터

지역사회 역사 바로 알기 차원에서 월 1회씩 추진해 온 프로그램이다. '문화동(文化洞) 다시그리기-북구, 문화로 걷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시민패널 25명이 참여해 광주교도소 터,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문화동 시화문화마을, 광주문학관을 답사하고 현장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동신대, 영덕 베이스볼 캠프 아이디어 공모 우수상



동신대학교 재학생들이 최근 경북영덕군에서 열린 '베이스볼 캠프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 이번 공모전에서는 '여성과 다문화'를 주제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됐으며, 송신대, 경희대 등 전국 11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동신대 생활체육학과 4학년 황재영, 소방안

전학과 2학년 김현, 경찰행정학과 4학년 박성준 학생으로 구성된 '재영업고투어' 팀은 외부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성준 전남도농업기술원 연구사

월드그린시드피아 '젊은육종가상'



김성준(사진) 전남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가 (사)한국육종학회의 '2025 월드그린시드피아 젊은육종가상'을 수상했다.

'젊은육종가상'은 작물 육종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젊은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김 연구사는 양파 신품종 육성과 산업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 연구사는 '금송이', '아리아리랑' 등 총 9개 품종을 개발, 매년 약 140ha 이상 지역에 보급하는 데 기여해 지역 농가 소득 향상 뿐 아니라 수입 종자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을 줄이는 등 국내 종자 산업의 자립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했다.

김성준 연구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현장 맞춤형 품종 개발과 지속 가능한 양파 산업 성장을 위한 실용 연구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북한이탈주민의날 기획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태양을 삼킨 여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여왕의 집(재)	30 930 MBC 뉴스 45 광주MBC 보더 스페셜	55 SBS 10 뉴스
10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1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00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문 45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3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1				
12	00 KBS 뉴스 12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미니미니 미니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뽀뽀뽀 좋아 55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문	00 네모세모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시간여행자 루크(재)	25 광주MBC 보더 스페셜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세상의 모든 다큐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20 스튜디오 K 스페셜	10 폭 쉬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닥터 365 55 도시락 스페셜(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더	35 시사타치! 따따부따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여왕의 집	05 태양을 삼킨 여자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대운을 잡아라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오래된 만남 추구	00 폭 쉬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45 오온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심왕2 너는 내 운명
11	35 우리 집 금송아지(재)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더 시즌즈 -박보검의 칸타빌레 스페셜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25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재)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0 MBC 뉴스 25 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50 KBC-희망동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
05:50 한국기행(재)	12:00 EBS 뉴스 12	19:20 고희만국
06:10 세계테마기행 <이게 몽골이지! -상남자들이 산다, 울스>	12:10 극한직업	19:50 왔다 내 손주
07:00 애코와 친구들 수리수리 뽀뽀랜드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눈부시게 찬란한 여름,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의 낭만, 두브로브니크>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21:35 한국기행 <찾아라 피서 맛집 1부 -엄홍길의 여름 오대산>
07:30 슈퍼왕슈퍼콤보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1:55 PD로그
07:45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15:10 고희만국	22:45 EBS 다큐프라임
08:00 똥덩덩 똥덩덩	15:40 마사와 곰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8:50 영유아 클래스 e	15:55 불룩스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9:20 자이언트 팽TV	16:10 똥덩덩 똥덩덩	24:40 클래스 e(재)
09:40 PD로그	17:00 페파 피그	
10:30 한국기행(재)	17:1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17:40 도레미 프렌즈 쇼츠	
	17:50 자이언트 팽TV(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4일(음 5월 19일 甲寅)

<p>36년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48년생 중차대한 판단의 분수령에 놓여 있으니 장고를 거듭하라. 60년생 무리할 필요는 없는 법이니 자신의 능력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다. 72년생 가까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세이다. 84년생 꿈꾸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96년생 애매하다면 판단을 보류하라. 행운의 숫자 : 28, 50</p>	<p>42년생 기막히게 좋은 운세이니 주저하지 말고 분개도로 진입하도록 하라. 54년생 상대는 힌트만 주어도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66년생 똑같이 인식한다면 큰 혼란으로 이어지는 니라. 78년생 파격적인 앙상을 열 수 있으니 변화의 조짐에 주목해야 한다. 90년생 필수 사항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 02년생 간단히 하라. 행운의 숫자 : 48, 83</p>
<p>37년생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쇄적인 탄력을 받는다. 49년생 작은 즐거움이 보이지만 염려할 바는 아니다. 61년생 큰 것만을 바라다가 작은 것 마저 놓친다. 73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가 보인다. 85년생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 97년생 강이 바다에 이르는 듯한 대단원의 합류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3, 67</p>	<p>43년생 의무적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55년생 절치대로 해야 한다. 67년생 내키지 않으면 재빨리 변경하는 것이 낫다. 79년생 외형상으로는 복잡해졌 겠지만 실제로는 풍부해진 셈이다. 91년생 세밀하게 검토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실수를 방지하라. 03년생 의지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성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0, 76</p>
<p>38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50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편안해질 것이다. 62년생 주된 작을 바라다가 보면 부수적인 것에 소홀해진다. 74년생 어려워 보여도 막상 실행한다면 가볍게 해결되리라. 86년생 기대했던 보보다 큰 효과를 보게 된다. 98년생 발상이 참신하다면 결과가 김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88</p>	<p>44년생 대중 넘어가도 될 문제가 아니다. 56년생 혁신적인 방안의 강구가 절실하다. 68년생 본질과 속성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함께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지 아니 한다. 80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경향이 많은 이를 찾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92년생 수익은 있으나 규모가 너무 작다. 04년생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5, 79</p>
<p>39년생 만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51년생 속히 결정하지 못한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다. 63년생 상당히 높은 궤도로 오르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게 된다. 75년생 힘들기는 하지만 거를어 주는 이도 있다. 87년생 지혜보다 직감이 더 맞는 날이다. 99년생 잘 활용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7, 95</p>	<p>45년생 사세 부덕이, 전체적인 흐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57년생 중간에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다. 69년생 걸가지를 버리고 몸통을 끌어안아 보자. 81년생 매끄러운 마무리가 이미지를 좌우하겠다. 93년생 가까스로 반전되어 가고 있다. 05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2, 66</p>
<p>40년생 먼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으니 눈 크게 뜨고 살펴보라. 52년생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내버려 두어도 되는 판세이다. 64년생 지금이야말로 제때를 만났으니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한다. 76년생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좋다. 88년생 지난 번의 형세가 다시 시작된다. 00년생 어려움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매우 거칠다. 행운의 숫자 : 26, 98</p>	<p>46년생 새로운 인연은 길사를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리라. 58년생 정도를 벗어나면 당연히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70년생 유명무실한 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82년생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94년생 반드시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라. 06년생 목욕도 정도를 걸으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09, 75</p>
<p>41년생 사소한 것은 차치하고 큰 가닥에 따라야 할 것이다. 53년생 부식들을 차야 붙어 일어나게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알라. 65년생 지나치다면 치명적일 수도 있다. 77년생 분명 한 입장에 서서 절치대로 이행함이 순리이다. 89년생 귀에 거슬릴지언정 삶에 도움이 되는 충고이니라. 01년생 원만한 정도가 최적이니 귀찮아라. 행운의 숫자 : 39, 87</p>	<p>47년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59년생 다양한 변수가 보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71년생 그 무엇보다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83년생 현재의 처지와 분수에 순응하는 것이 낫다. 95년생 탄력이 붙었을 때를 놓치지 말고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07년생 조언이 절실한 처지이다. 행운의 숫자 : 02, 61</p>